

지역·세계 아우르는 글로벌 인재 육성

전남도교육청, 독서 인문교육·지역 여건 반영 다문화 친화 교육정책 강화

“K-에듀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남교육”을 비전으로 지역과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최근 발표한 신년사에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의 기본을 회복해 수업에 집중하는 학교문화와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민선 4기 전남교육의 핵심은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라며 “학생 성장을 돕는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공존교실 구축, 수업 중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줘 ‘수업이 가능한 교실’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기초학력전담 교사제 배치,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을 진단해 1대1 또는 소그룹 지도, 독서인문교육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문화 친화 교육정책 강화 등을 제시하고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산업인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의 기본을 세우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독서 인문교육을 기반으로 한 미래인재 육성을 지속한다. 전남도교육청은 앞서 전국 최초로 독서 인문교육 전담팀을 신설해 독서 인문교육을 펼치고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독서 문화를 일군 것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이중언어와 한국어교육 역량 구축에도 힘쓰면서 글로벌 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 다문화 인재 전형 초등교사를 채용하는 등 중점 목표로 정했다.

이와 함께 2026년 개교를 목표로 가장 전남국제 직업고등학교를 설립해 이주배경·중도입국 학생과 해외 유학생을 대상 전문 직업교육을 제공해 취업 및 정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에는 1만 2000명이 넘는 이주 배경 학생이 재학하고 있어 전남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학생 국제 교류 사업을 지원하고 미국·캐나다·베트남 등과의 국제 교류도 더욱 활성화한다는 뜻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공생 가치 실천도 강조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역사·평화·인권·통일 등 지역의



김대중 교육감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전남 의(義)’ 교육으로 지역적 정체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성장의 동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중심 탐구 실천의 공생의 길(물길·술길) 프로젝트 학생 동아리 활동을 350팀으로 확대해 생태감수성과 생

태 시민 역량을 강화한다.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전남형 늘봄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습 기회도 제공한다. 미래교육 체계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조직개편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다가올 2030년을 대비해 2030 교실을 개발하고 K-에듀 핵심역량을 기르겠다”라며 “전남의 아이들이 국제적인 감각과 책임감을 갖춘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글로벌 교육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다 함께 책 읽는 문화’ 만든다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 독서자료 5종 보급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다 함께 책 읽는 문화’ 조성에 나선다.

1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교육 현장의 독서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 자율시간 활용 독서교육 자료 2종, ‘한 학기 한 권 읽기’(은 책 읽기) 독서교육 자료 3종 등 총 5종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했다. (사진) 이번 자료는 지난해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자율시간 활용 독서교육 자료는 2022 개정교육과정을 기초로 학교자율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용 ‘책, 함께 놀자!’와 중학교용 ‘책 품다: 책이 품는 질문들’ 등이다. 이 자료는 학생들이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접하며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은 책 읽기) 독서교육 자료 3종은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수준에 맞춰 학생들이 스스로 독서 활동을 계획하고, 독서 관련 토론·글쓰기·발표 등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초등학교용 ‘책을 읽다, 세상을 읽다!’는 학생들의 독서 흥미를 유도하고, 중학교용 ‘비경쟁 독서토론을 통한 문해력 만렙 도전’은 학생들이 비경쟁적 환경에서 독서토론을 통해 문해력을 향상시키고, 비판적 사고 및 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등학교용 ‘한 책 한 걸음’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5종 모두 다양한 참고 사례, 학생 활동지 등을 담아 이해를 도왔다.

자료들은 시교육청 누리집(자료마당)부서별 공개자료실(진로진학과)에 PDF 파일로 탑재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다시 책으로, 다 함께 책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독서문화가 학교현장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학생들의 독서와 학습능력 향상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에 개발한 독서교육 자료가 학교자율시간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서 독서교육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지도록 기여할 것이다”며 “올해도 학생 중심의 실천적 현장 독서교육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박물관, ‘고인들을 담은 청동기시대 테라리움 만들기’ 운영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사업 선정 7월 아동·초등 대상 6회 운영 예정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박물관이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주관하는 ‘2025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사업’ 교육운영지원 부문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2005년부터 추진된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사업’은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역박물관과의 역량을 강화하고 문화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 기획전시, 교육 개발 및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 운영지원사업은 지역박물관의 특색을 살린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사업계획안의 참신성, 타 기관과의 차별성, 교육내용 구성의 논리성 등을 심사해 올해 전국 5개 기관을 선정했으며, 대학박물관으로는 조선대학교박물관이 유일하다.

조선대학교박물관은 청동기시대 마을을 테라리움으로 재구성해보는 ‘고인들을 담은 청동기시대



2024학년도 조선대학교박물관 체험프로그램.

테라리움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지희 학예연구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박물관으로써 박물관 내 다양한 유물을 효과적으로 학습·체험할 수 있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7월 중 아동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6회(회당 20명)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 일정 및 신청방법은 추후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을 통해 게시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국제커리어와 산학 협약...청년고용 활성화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재학·졸업생들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돕도록 취업 지원 서비스를 펼친다.

동강대는 최근 분관 1층 장원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기관인 ㈜국제커리어와 산학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강대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사업을 비롯한 청년고용사업 참여를 활성화해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이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수당을 지급한다.

구직자들에게 직업심리 검사와 취업진로방향 설정, 구직준비도 검사, 에니그램 등 다양한 상담을 비롯해 일 경험, 해외 취?창업을 지원하는 ‘K-move’ 등과 연계한 취업능력 향상 지원, 1대1 이력서 및 자소서 작성 등을 돕는다. AI, VR(가상현실) 면접기를 통해 인공지능 면접 컨설팅도 서비스한다. 수당의 경우 유형별로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동강대 이봉선 학생지원처장은 “정부의 취업



지원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또 AI/VR 면접기를 통해 인공지능 면접 컨설팅도 서비스한다. 수당의 경우 유형별로 취업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동강대 이봉선 학생지원처장은 “정부의 취업 지원 정책 등을 적극 활용해 학생들이 자신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학생들이, ‘CES 2025 전남관’ 참여 전남 비전 홍보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 학생들이 세계 최대 규모 제품 박람회인 ‘CES 2025 전남관’에 참여해 전남의 글로벌 비전을 세계에 알렸다.

13일 동신대 산학협력단에 따르면 창업동아리 학생 5명이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한 2024년 대학생 무한도전 프로젝트(CES팀)에 선정돼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서 개최된 ‘CES 2025’를 참관했다.

동신대 재학생들은 CES 전남관에서 전남의 혁신적인 기업 홍보, 통역,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전남의 혁신 기술과 글로벌 비전을 홍보했다.

또 다양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첨단 기술과 글로벌 산업 동향을 파악하고 견문을 넓히며 글로벌 미래 산업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쌓았다.

동신대 최효승 산학협력단장은 “전남 대학생들이 직접 ‘CES 2025 전남관’에서 세계인들을 향해

전남의 글로벌 비전을 알린 데 의미가 있다”면서 “지역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대학 상생 발전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술 박람회로, 전세계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신기술과 신제품을 선보이며 기술 트렌드를 제시하고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하는 장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용역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 고효율 STS membrane 불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식성, 슬러지 건조기 등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1997 태림인드스트리에 법인설립
2011 수출백만불팀,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정량생산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장관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자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아름다운 자연환경 청정!
태림인드스트리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